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남조선대통령의 특사대표단 성원들을 위하여 만찬을 마련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 방문하고있는 남조선대통령의 특사 함께 만찬장에서 문재인대통령의 마뚝이 맞이하시였다. 함께 참가하였다.

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대표단 성원들을 위하여 3월 5일 특사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만찬은 시종 동포애의 정이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만찬을 마련하시였다. 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 원장, 천해성 김영철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 넘치는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진행 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통일부 차관, 김상관 국가정보원 위원회 제1부부장 김영정동지를 되었다.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평양을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리설주녀사와 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 실장을 비롯한 관계부문 일군들이 만찬에

본사정치보도반

## 일군의 위치 - 들끓는 현실

인민대중이 있는 현실, 체제와 담보가 없고 비약과 혁신으로 충만되어있으며 애로와 난관을 박차고 나가는 혁명적기상이 약동하는 현실은 일군들에게 있어서 사상단련과 혁명적수양의 가장 훌륭한 학교이다.

일군들이 손에 기름을 묻히고 신발에 흙을 묻히면서 군중과 어울리는 것을 몇몇하게, 지팡스럽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의도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의 지휘성원들은 품오와 자질을 인민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사임하고 생활하는 과정에 형성되고 공고화됩니다.》

들끓는 현실에 자주 들어가 대중과 친숙하게 어울려 한 모퉁이를 맡아 제기는 일군, 바로 이런 일군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모든 일군들이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그들과 함께 동침도 하고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성실히 일하면 인민들이 다 애국의 한마

음이 부강조국건설에 적극 면쳐 나설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군중과의 혼연일체, 이는 로동계급의 당의 생명선이다.

일군들은 어디에 가건 군중과 떨어져 있지 않아야 한다. 일군들이 군중과 떨어지면 당이 군중과 떨어지는 후과를 초래하게 된다.

일군들의 현실침투문제는 이렇게 심각하다.

일군들이 사무실에만 앉아있어서는 아래의 실정도 알수 없고 사람들의 심정도 알수 없으며 그렇게 되면 일을 제대로 할수 없다는 것이 우리 당의 뜻이다.

들끓는 현실은 일군들로 하여금 군중을 가르치기 전에 군중에게서 배우고 인민의 수고를 알아야 할 줄 아는 인민의 참된 총부, 진정한 인민의 아들딸들로 키워내는 비록한 도량이다.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려면 방법론을 잘 세워야 한다.

면밀한 작전과 포지, 정확한 장악과 지도, 철저한 총화와 제보지에 이르는 전진사업과정에 대한 주도세밀한 대책...

이 모든것은 회공에서 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일

## 인민이 바라다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그 누구보다도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시였으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한생을 쫓아 나갔으며 조국청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절세의 애국자입니다.》

인민이 바라다면 하늘의 별도 따고 물속에라도 쫓을 피워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장군님께서 지니고 계신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이고 의지였다.

수십년전 어느날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시계기술의 종산군 공의 목소리에 붙어가면 성실한 일군, 비록 맑은 적재 해도 걸린 문제에 비관저 어깨를 붙이시는 혁명적로 실장을 붙여주시는 일군.

이런 일군이라야 늘 현실에 몸을 푹 잠그고 당정책을 한사람이라도 더 알게 할수 있으며 많은 단위에서 집단지휘관이 일어나게 하고 당정책을 관철시켜 줄수 있는 혁명적 현실을 대하며 가슴뭉클해지는 뜻을 천군보다 더 소중히 여길수 있는 것이다.

본사기자 량 순

워 적도 움트지 못하는 불모의 땅이었던 총정리시기를 기쁘고 생명이 솟아나는 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진해오던 한가시이 아쉬운것은 바라는 물에 약간의 소금기가 배어있는것이였다.

소금기가 없는 물은 마시고싶어하는 총정리사람들의 소원을 깨어주시며 몸소 집집마다 수도를 놓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도 이렇듯 또다시 먼길을 오시어 심혈을 기울이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경건한 마음으로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은 후덕게 달아올랐다.

그때로부터 얼마후 총정리마을의 집집마다에서는 맑은 물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면 바라면 맛되고 시원한 물을 받아있게 된 총정리사람들의 심정이 어떠하였는가.

자기 고장이 생겨 처음으로 짐짐 마다에 흘러드는 사랑의 생명수를 두 손에 떠들며 총정리사람들은 눈물로 두 볼을 적시었다. 온 마을이 수도화에 대한 이야기로 붓을 피우며 우리 장군님을 인민이 바라다면 하늘의 별도 따고 물속에라도 쫓을 피우시는 인민의 어머니시라고 한목소리로 칭송하였다.

본사기자 채 히 성

## 혁명적당풍확립은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높이기 위한 요구

오늘 혁명적당풍을 철저히 확립하는 것은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이고 우리 혁명의 정치사상적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로 나설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앞에 나선 투쟁과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굳게 단결시키고 혁명적당풍을 철저히 확립하여 혁명과 건설사업전반에서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합니다.》

당풍은 한마디로 말하여 당생활기풍과 당사업기풍이다.

가정에는 가풍이 있고 사회에는 그 사회를 지배하는 사회기풍이 있는 법이다. 마찬가지로 당에도 자기의 고유한 당풍이 있다. 가풍이 바로서 있지 않은 가정은 행복할수 없고 사회기풍이 문란한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할수 없는 것처럼 혁명적당풍을 확립하지 못한 당은 령도적정치조직으로서의 사명을 다할수 없다.

혁명적당풍을 철저히 확립하는 것은 당의 강화발전에서 중요한 의의의를 가진다. 조선로동당은 창건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승리만을 펼쳐온 위대한 당이다. 우리 당이 력사에 뚜렷없는 시련속에서도 조직력과 전투력이 강한 강철의 당으로 존엄명예를 우리 인민의

투기력하고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락되게 된다.

조직성과 규율성은 혁명하는 당이라고 하여 저절로 실현되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혁명적당풍을 확립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공고화되게 된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주체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고 인제 어디서나 당규약의 요구대로 사업하고 생활하며 수령의 로선과 정책을 절대적, 무조건적의 원칙에서 철저히 관철시켜나가는 혁명적인 당생활기풍과 당사업기풍이 전당에 차달될 때 당은 높은 조직성과 규율성을 지닌 위력한 당으로 된다.

주체의 당건설로선을 구현하여온 나날에 우리 당은 당풍확립을 조직성과 규율성을 높이는 기본고리로 삼아오셨다. 오날 우리의 모든 당원들은 누구나 다 귀중한 심장을 당중앙위원회에 바쳐놓고 인제 어디서나 당규약과 사상도 숙종대로 발걸음을 함께 해 나가고있으며 당중앙위원회로부터 당내로 이르기까지 전당에 령도자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규율이 철저히 확립되어있다. 뿐만아니라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당의 결정지시를 본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고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당에서 정해준 시기에, 당이 요구하는 높이에서 무조건적 결사관철하는 투쟁기풍이 팍 차달리고있다. 이것이 혁명적당풍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건이다.

당과 대중과의 혁명적연계는 당의 운명,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혁명적당은 인민대중과 한몸이 되어가고 인민들이 절대적으로 믿고 받들 때 그 어떤 곤경속에서도 배심돈든지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며 위대한 력사를 창조해나갈수 있다.

지난날 세계혁명운동사의 교훈은 혁명하는 당, 사회주의집단당이라고 하여 저절로 인민대중의 지지와 신뢰를 받게 되고 령도적권위와 전투력을 높여가게 되는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당과 인민대중과의 혁명적연계는 인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전진하는 당의 사상과 이념으로서 유일적령도체제확립과 당원들의 당성면에서 중심을 두고 짜고들어 온갖 사상과 이념구별이 발붙이지 못하고 당중앙위원회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일심단결이 바탕으로 강화될수 있다. 이와 함께 모든 당조직들이 자기 당정책을 위한 불같은 불을 지펴올려, 결사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이 영원한 전통으로 이어지게 될것이다.

수행하여야 할 과업은 매우 빈대하다. 그러나 령도자와 선전군이 위대한 집일성인즉, 김정일조선의 위업을 만만하게 만들기 위한 투쟁의 길에서 한마음한뜻이 된 일심단결이 있는 한 뚝지 못할 시련도 절망 할 요세도 없다. 바로 이 위대한 힘을 최대로 폭발시켜 만리대천군에서 자랑스런 승전포성을 다발적으로, 웅장적으로 울려나오게 하는데 오날 우리 당이 혁명적당풍확립을 강조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인제 어디서나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길에서 참된 보람과 행복을 찾는 것이 현시기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이 베풀어야 할 새겨안고 높이 발휘하여야 할 사상정신이고 투쟁기풍이다. 특히 전당적으로 당내외로 관료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업방법과 작풍을 뿌리째내는데 모를 막고 혁명적당풍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이 벌려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혁명적당풍을 철저히 세우는데 대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뜻을 피워는 심장마다에 쏘아박고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배방으로 높이고 사회주의최후승리를 앞당겨오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박 철